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문화

정 광 중*

Mt. Halla (Hallasan) and the Culture of Jeju Island

Jeong, Kwang-Joong*

요 약 : 이 연구는 한라산의 자연과 제주도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련성을 고찰한 것이다. 한라산은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자연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에게는 한라산이 육지부의 산과는 다른 독특한 이미지와 정서를 자아내는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또한 제주도민들의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왔다. 이 배경에는 한라산이 제주도민들의 생활권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한라산이 보통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연의 비밀과 문화적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라산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는데 소중한 대상이 돼 왔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다. 결국,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늘 한라산으로 향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지적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삶을 유지해 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존재적 가치를 지닌 명산이라 말할 수 있다.

주요어 : 한라산, 제주도(濟州島), 제주도민, 생활문화, 한라산국립공원

Abstract : This study w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of Mt. Halla and the living culture of Jeju islanders. Mt. Halla is the representative natural element which provide the residents and visitors with precious experience and memory. In Jeju islanders, Mt. Hall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the unique image and emotion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e Mountains in the other provinces. Also, Mt. Halla has given great opportunity to constitute living culture in jeju islanders. Several factors are behind these backgrounds. First, Mt. Halla is very closed to living area of jeju islanders. Second, Mt. Halla has the important secrets of nature and cultural information. Third, Mt. Halla accepts all people regardless of age or sex. Also, Mt. Halla has been the precious existence to come true dream and ideal of all people. After all, Many people would like to climb Mt. Halla for these reasons as stated above. Therefore, Mt. Halla has the great value of existence to make a living in jeju islanders.

Key words: Mt. Halla (Hallasan), Jeju island, Jeju islanders, living culture, Mt. Halla (Hallasan) National Park

1. 서론

평소에 제주도민들은 한라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라산은 제주 섬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음으로 인하여 제주도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매일같이 부모나 자식얼굴을 대하듯 쳐다볼 수밖에 없

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을 대할 때의 도민들의 태도나 상념은 항상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침에 일어나 한라산을 바라보며, 오늘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것 같다고 나름대로 날씨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라산이 선명하게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전제로 그 날의 운수를 점치는 사람

*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ongkj@jeju.ac.kr

도 있다. 또한 계절 따라 변하는 한라산의 자태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안타까워하거나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 속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미터(barometer)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는 근원지로서, 꿈과 이상을 키우기 위한 대상으로서 혹은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정신적 도량을 넓히는 수련의 장으로도 끊임없이 이용돼 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문화의 한 맥을 이어오는 데에도 중요한 근원적 요소가 돼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이 노래하고, 시를 쓰고, 소설과 수필을 쓰는데 매우 절실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아 묵묵한 조연자의 역할과 함께 때로는 선망과 흠모의 대상으로서, 때로는 숭상과 경외의 대상으로서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의 목적은 한라산의 자연과 제주도의 문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문화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제주도민들의 한라산을 기저로 한 정신 문화적 측면에 근간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 논의의 쟁점이 되는 제주도의 문화 특성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 연구는 현지답사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현지답사는 주로 2005년 4~5월과 11월에 행하였으며, 사진자료는 현지답사 시 필자가 촬영한 것과 제주도내 지역신문사인 한라일보사로부터 일부 제공받은 것을 사용하였다. 문헌자료는 한라산의 자연 및 생태와 관련되는 것을 비롯하여 한라산 주변지역의 문화재의 분포와 관련되는 것,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생활문화와 관련되는 것들을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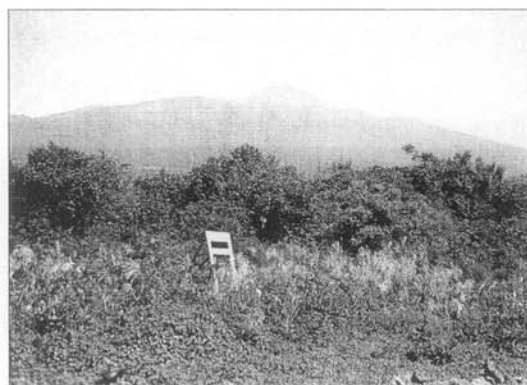
2.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라산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라산체(漢拏山體)를 어느 지점(범위)까지로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사진 1, 사진 2).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쯤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보통 우리는 한라산 하면 가장 먼저 정상부에 위치한 화구호인 백록담(白鹿潭)을 연상하게 된다(사진 3). 그리고 백록담은 마치 한라산의 최고봉인 것처럼 착각까지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백록담은 한라산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상부의 어느 한 지점에 오르기 전까지는 눈에 들어오



〈사진 1〉 제주시 애월읍 쪽에서 바라본 한라산



〈사진 2〉 서귀포시 안덕면 쪽에서 바라본 한라산



〈사진 3〉 한라산 백록담(산정호수)

지 않으며 더욱이 한라산을 오르지 않은 채 그저 멀리서 조망할 때는 결코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백록담은 결코 한라산 최고봉도 아니다¹⁾. 그렇지만, 한라산이라 말하면 모두가 백록담을 우선적으로 머리 속에 떠올리게 되는 배경은 비록 백록담이 한라산 최고봉

은 아닐지라도, 최고봉 아래의 산정호수(山頂湖水)로서 항상 신비스런 자태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백록담이 신비스런 일면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백록담과 주변 정상부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아래의 <표 1>은 백록담 정상부와 관련되는 몇 가지 중요한 지리적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한라산을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아래에 제시한 지리적 정보 정도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주도민들은 흔히 “한라산이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어찌 보면 다소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 표현 자체는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을 매우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에

<표 1> 백록담과 정상부의 지리적 정보

지리적 정보	해당 수치(값)	참 고
① 수리적 위치	동경 126° 32' 31" 북위 33° 21' 31"	백두산 : 동경 128° 05' (2,744m) 북위 41° 01'
② 소재지	서귀포시 토평동 산 15번지	
③ 분화구 면적	210,230m ² (63,700평)	산굼부리 : 574,697m ² (174,133평) 아부오름 : 314,926m ² (95,423평)
④ 담수면적	11,460m ² (3,472평)	만수시의 담수면적 20,912m ² (6,336평)*
⑤ 최대 담수위	4.05m	한라일보사와 한라산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2003년 7월 25일)*
⑥ 최대 담수량	56,513톤	한라일보사와 한라산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2003년 7월 25일)*
⑦ 분화구 깊이	108m	산굼부리 : 200~380m 아부오름 : 78m
⑧ 분화구 표고	1,841.7m	
⑨ 분화구 둘레	1,720m	삼굼부리 : 2,067m 아부오름 : 1,400m
⑩ 분화구 반경	동-서 : 약 600m(장반경) 남-북 : 약 400m(단반경)	
⑪ 정상(서능)	해발 1,950.1m	1901년 독일인 지리학자 지그프리드 겐테가 측정
⑫ 지 질(암석대비)	서북벽 주변 : 조면암 동능 등 주변 : 현무암	
⑬ 분화구내 식물분포	167종	제주도의 총 식물종수 1,800여종

(*: 공식적으로 기사화 되어 발표된 것은 2003년 8월 4일자로 제1면, 10면 및 11면 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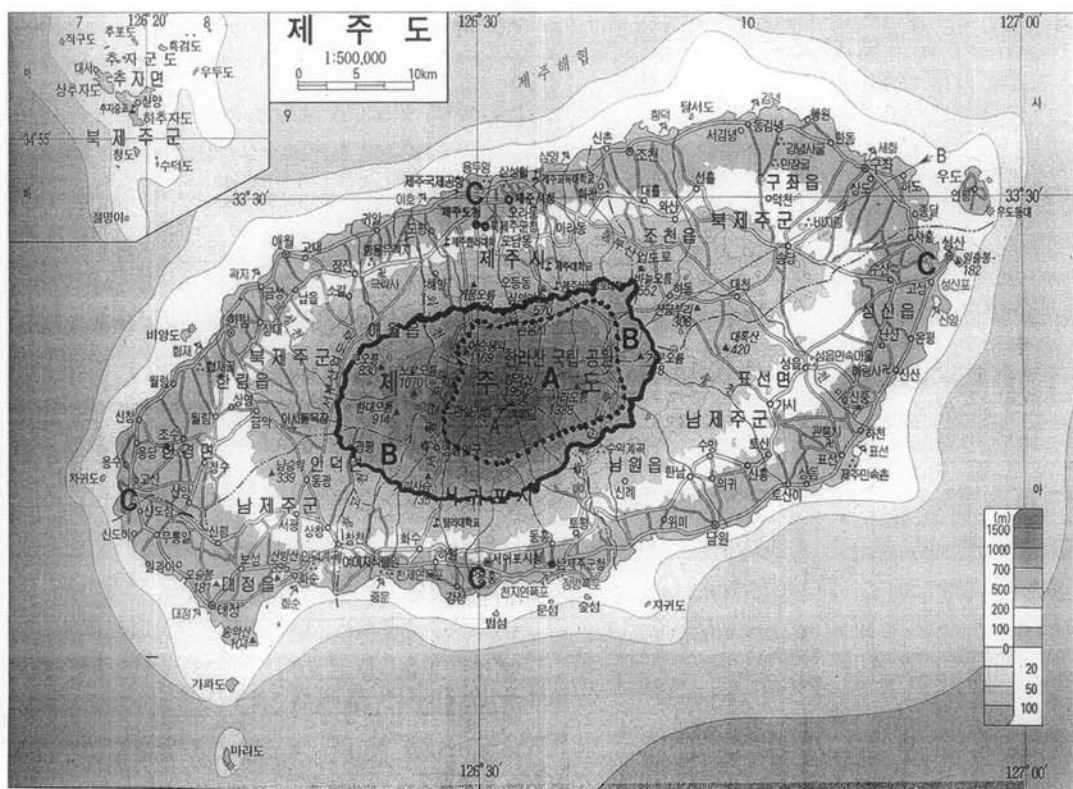
출처: ①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www.hallasan.go.kr), ② 제주도, 1997. 제주의 오름, 제주도 등. 일부의 지리적 정보는 필자가 수정·첨가함.

대하여 제주도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한라산 = 제주도, 제주도 = 한라산」의 논지를 포함하여 세 가지 시점에서 구분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세 가지 시점에서 전망하는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은 나름대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를 토대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에 대한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라산을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 한라산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한라산 =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으로 설정하는 시점(그림 1)- A)

한라산(제)이 어느 지점(범위)까지를 일컫는 것인가를 판가름할 때, 한가지 지표가 될 수 있는 경계선은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간적인 범주라 할 수 있다. 언뜻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고 쉽게 연상해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한라산이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건설부 고시)된 것은 1970년 3월의 일이며, 그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1966년 10월부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돼 왔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총면적은 153,386km²(15,338.6ha)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8.2%(이 중 사유지는 3.4km²[340ha])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2002년 12월부터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그림 1> 한라산의 공간적 범위와 영역을 보는 시점의 경계지도

[한라산국립공원 내(A), 해발고도 500m 경계선(B) 및 제주도 전체(C)]

출처: 오홍석 외, 2001, 중학교 사회과부도, (주) 천재교육, 31쪽의 지도를 일부 변경.

도 전체 지정구역인 83,094ha의 면적 중에서 핵심지역(Core Area)은 15,158ha를 보이고 있는데²⁾, 이 범위는 거의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셈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시·군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58,784km²(5,878.4ha), 서귀포시가 36,575km²(3,657.5ha), 북제주군이 35,558km²(3,555.8ha), 남제주군이 22,469km²(2,246.9ha)의 순서로 넓게 점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³⁾. 나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의 일부를 끼고 있는 읍·면지역은 북제주군의 애월읍과 조천읍, 그리고 남제주군의 남원읍이다. 결국 한라산국립공원을 배후지로 삼고 있는 지역은 2개 시와 3개 읍지역으로 압축된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단순한 행정 경계선에 불과할 뿐으로,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의 차이나 경관적 가치에서 차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발고도로 살펴보면, 제주시 쪽에서는 해발 약 600~850m, 서귀포시 쪽에서는 900~1000m, 애월읍 쪽에서는 750~1000m, 조천읍 쪽에서는 600~700m, 그리고 남원읍 쪽에서는 650~850m 사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⁴⁾.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를 3개의 지역(해안지역, 중산간 지역, 산간지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적용시켜 볼 때 산간지역(600m 이상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한라산국립공원 안에는 총 46개의 오

름(기생화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의 지역별 분포실태를 보면, 제주시가 17개(큰드레왓, 어승생악, 삼각봉, 왕관릉, 흙불은오름, 물장오리, 성진이오름 등)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북제주군에 15개(붉은오름, 이스렁오름, 만세동산, 삼형제오름, 옷세오름, 어후오름 등), 서귀포시에 8개(오백나한, 불래오름, 다래오름, 방애오름, 장오름 등), 남제주군에 6개(동수악, 성널오름, 논고악, 사라오름 등)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사진 4). 그리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속하는 읍 단위별 분포에서는 북제주군 애월읍에 14개(붉은오름, 만세동산 등), 남제주군 남원읍에 6개(앞에 제시한 남제주군의 오름 6개), 북제주군 조천읍에 1개(어후오름) 순으로 확인된다. 이들 중 한라산 정상부나 백록담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오름은 제주시 쪽의 장구목(오라 2동), 왕관릉(오동동), 삼각봉(오라 2동)과 서귀포시 쪽의 옷방애오름(동홍동), 그리고 애월읍 쪽의 옷세오름(붉은오름, 광령리)이다(사진 5).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2000)과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1998)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입지하고 있는 문화재는, 먼저 지정문화재로서 ①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1966년 10월 지정, 1993년 8월 변경), ② 존자암지(제주도기념물 제43호, 1995년 지정), ③ 존자암지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제주도유형문화재 제17호, 고려·조선시대, 부도[浮屠], 2000년 지정)이 있으며, 이어서 비지정문화



〈사진 4〉 불래오름(좌측)과 이스렁오름(우측)



〈사진 5〉 옷세(윗세)오름



〈사진 6〉 한라산 관음사



〈사진 7〉 천왕사

재로서 ④ 하원동절터추정지(조선시대, 존자암지 남서쪽 일대), ⑤ 백록담 마애명(조선시대 목사인 李潤成, 趙威鎮, 沈樂洙, 李養鼎, 趙貞喆, 任觀周, 趙榮順, 趙觀彬, 南益祥 등이 남긴 것, 백록담 동쪽 암반과 동쪽 꼭대기 암벽), ⑥ 관음사(아라 1동, 근대, 1901년 안봉려관 스님 창건), ⑦ 관음사 군(軍) 주둔지 옛터(4·3유적, 아라동, 토벌대 2연대 2대대 병력 주둔) 등이 있다. 더불어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안에는 관음사 외에도 천왕사, 석굴암, 존자암 등의 사찰이 있어서, 사시사철 불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사진 6, 사진 7).

한라산체의 크기나 한라산의 영역(공간적인 범위)을 한라산국립공원 내로만 압축해서 고려하는 시점은 분명히 한라산의 영역을 가장 작고 좁게 설정하는 과잉에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라산을 인식하는 사고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시각은 한라산이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제주도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랫동안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자연 생태계가 온전하게 보존돼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라산 = 한라산국립공원」으로 보는 시각은 한라산이 항상 푸르고 깨끗하며, 제주도의 자연을 최고로 대표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점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고라 할 수 있다.

2) 「한라산 = 해발고도 500m 이상 지역」으로 설정하는 시점(그림 1)~ B)

한라산을 해발고도 500m 이상 지역으로 설정하여 인식하는 시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가지 의문점이라면, 왜 하필 해발 500m 지점으로 설정하는가에 대한 점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단초를 제공한 연구자는 현원학(2004)이다. 그리고 필자도 해발 500m 지점까지를 한라산체로 보는 시각에는 충분히 동감할 수 있다. 현원학이 한라산(체)을 정의함에 있어 해발고도 500m선으로 설정한 근거는 해발 500m 지점이 고려시대(?)부터 조성된 목마장(牧馬場)용 갯성(상갯성)을 쌓았던 지점이라는 사실과 오늘날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경계지점이라는 배경을 내세우고 있다⁵⁾.

지형적으로 볼 때, 한라산체가 해발 500m 지점까지만 이어지다가 갑자기 끊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해발 500m라고 하는 지점은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인위적인 설정지표에 의해 오랫동안 제주도민들의 간섭을 덜 받은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장으로서의 기능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역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이 억제돼 온 배경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삼림이 비교적 탁월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도 아주 양호한 상태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2).

<표 2> 해발 500m 이상의 토지이용 실태

(단위: km², %)

취락지	밭	과수원	시설농경지	초 지	산림지	잡목지	시설용지	기 타	합 계
0.1(0.0)	0.4(0.1)	-(-)	-(-)	33.6(10.3)	262.9(80.8)	24.5(7.5)	1.2(0.4)	2.8(0.9)	325.5(100.0)

출처: 제주도, 1997,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165.

해발 500m 지점까지를 한라산으로 보고자 하는 시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제로 판단하는 사고라 할 수 있다. 하나는 평소 한라산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크고 높은 산(大山)으로 인식하면서 한라산체가 차지하는 영역이나 범위도 제주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고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라산이 지니는 품위나 품격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자 하는 사고도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한라산이 이미 과거로부터 제주선민들이 신성시해 온 영산임을 생활 속의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모든 마을을 관장하는 한라산신(漢拏山神)이 거주하는 특수한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제주도(1997)에 의하면, 해발 500m 지점 이상 지역의 면적을 검토해 보면, 총 325.5km²(32,550ha)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제주도 전체면적(1,828.3km²)의 17.8%에 해당되며, 또한 앞서 제시한 한라산국립공원의 면적인 153.386km²(15,338.6ha)의 2.1배에 해당된다. 말하자면, 해발 500m 지점까지를 한라산으로 설정하는 관점에서는 한라산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고 영역에서도 2배 이상의 확대된 배경을 지니게 된다. 한라산의 공간적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동서남북 방향 모두가 해당되지만, 유달리 남북사면 쪽보다는 동서사면 쪽이 훨씬 넓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제주도의 지형이 고구마처럼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배경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행해진 화산활동과 관련된다.

<표 2>를 토대로 해발 500m 이상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산림지가 262.9km²(8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초지가 33.6km²(10.3%), 잡목지가 24.5km²(7.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락

지나 밭, 과수원 및 시설용지 등 경제활동을 위한 인위적인 활용도는 아주 작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발 500m 지점까지를 한라산으로 설정하는 시점도 제주도 청정자연의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는 사고가 내재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해발 500m 이상의 지역에 나타나는 취락(마을)은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솔도마을, 해발 약 660m)과 안덕면 광평리 본동(해발 510m) 정도로 압축된다. 또한, 이 지역 안에서 눈에 띄는 인공 시설물은 표고버섯 재배사(숙사 및 관리사)와 목장·축사(용강목장: 해발 500m, 금산목장: 해발 570m, 호명목장: 560m)를 비롯하여 서귀포시 공설공원묘지(해발 500~525m), 남국선원(사찰, 해발 520m), 레이크힐스 골프클럽(일부, 520m 전후), 서귀포시 쓰레기위생 매립장(해발 520~550m), 제주시 공동묘지(해발 530~720m), 한밭저수지(해발 600m), 제주컨트리클럽(해발 510~590m), 제주농업시험장(2개소: 해발 520m 지점 및 690m 지점), 탐라교육원(해발 500m) 등이 확인된다⁶⁾.

더불어 해발 500m 이상의 지역 내에도 다양한 문화재가 많이 포함돼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제주마 종마장(종마 포함, 제주시 노형동, 천연기념물 제347호, 해발 570~680m),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59호, 해발 585~595m), 대포동 왕벚나무 자생지(비지정, 대포동 산 1-1번지 일대, 해발 800~865m), 색달동 상앗성(비지정, 해발 545~565m), 대포동~하원동 상앗성(비지정, 해발 600~650m), 법정사향일향쟁지(비지정, 도순동 산 1번지 하천변 일대, 해발 665~700m), 중문동 녹하지악 4·3성(비지정, 중문동 산 5번지 일대, 해발 520~530m), 왕이메 전설지(비지정, 안덕면 광평리, 산 79번지, 해발 612m) 조근대비악 전설지(비지정, 광평리 산 59번지, 해발 541m),



<사진 8> 물영아리 전설지



<사진 9> 조근대바막 전설지

물영아리 전설지(비지정, 남원을 수망리 산 189번지, 해발 508m),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 256호, 해발 525~560m) 등에 주목할 수 있다(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3)(사진 8, 사진 9). 이들 문화재의 특성은 인문적인 요소보다는 주로 자연적인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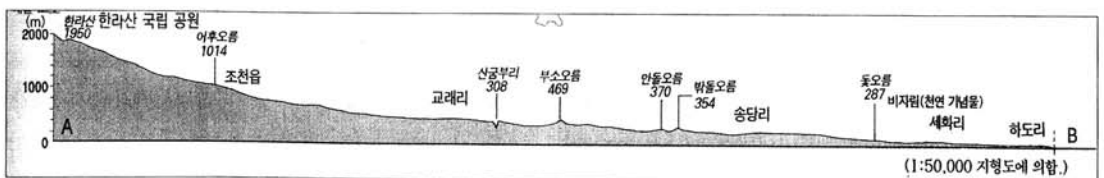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해발 500m 이상의 지역을 한라산으로 설정하는 시점은 제주 섬에서도 한라산의 존재가 상당히 크고 넓다는 배경을 전제로, 많은 제주도민들이 한라산 자락의 특정장소에 삶의 보급자리를 틀어 생활한다는 의식이 극대화된 사고라 할 수 있다.

3) 「한라산 = 제주도」로 설정하는 시점(그림 1)- C)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라산 = 제주도, 제주도 = 한라산」이란 등식의 사고는 오래 전부터 제주

도민들 사이에서 확산돼 왔다. 이러한 사고는 분명히 지형적·지질적인 정보나 지식을 전제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한라산체가 해안지역까지 뻗어있다고 보는 관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반도부(육지부)로 일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비행기나 배를 타고 제주 섬을 떠나갈 때, 제주 섬 자체가 시야에서 아득히 멀어지는 모습을 느끼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제주도민들은 한라산 자락이 해안까지 길게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한라산 자체가 제주 섬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터득하곤 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은 <그림 2>와 같이, 학교교육에서조차도 제주도에 대한 지형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주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지역신문사의 하나인 한라일보사에서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초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한라대맥(漢拏大脈)을 찾아서」(한라산 학술 대탐사, 제2부)란 제하의 대하기획물을 연재한 사실이 있다. 이 「한라대맥을 찾아서」란 기획물의 궁극적인 목



<그림 2> 한라산(정상부)~해안지역(구좌읍 하도리)까지의 지형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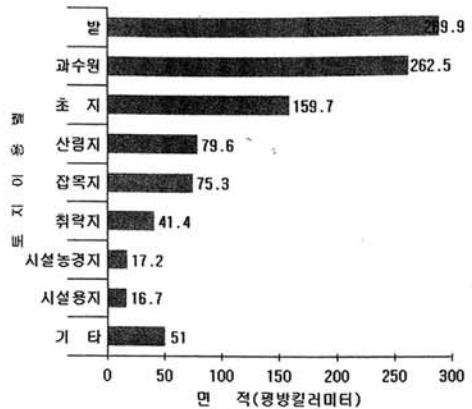
출처: 오홍석 외, 2001, 중학교 사회과부도, (주) 천재교육, 31.

적은 제주도의 최장축선에 해당하는 동서지역 내의 오름군(기생화산군), 즉 우도와 성산포 방향에서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를 가로질러 고산 차귀도 앞 해안에 이르기까지 110여 개의 오름을 탐사하여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주도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있었다⁷⁾. 다시 말해, 오름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발굴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정광중, 2005). 이러한 한라일보사의 대하기획물에도 「한라산 = 제주도」란 등식이 내면에 깔려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하면, 한라산 자락(사면)이 마치 성산포 방향에서 고산 차귀도 앞까지 동서로 길게 이어진 축(軸)으로 보고 접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라산 = 제주도」란 시점에서는 한라산이 제주도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대변하며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의 상징체로서 부각된다. 그리고 한라산이 곧 제주도라면, 제주도민들에게는 한라산이 정신적 지주임은 물론이고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는 근원적 존재로서 보다 확대된 사고가 깊게 자리잡는다(정광중, 2004).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이 곧 제주도라는 시점은 제주도라는 섬을 더욱 색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크게 해안지역(해발 200m 이하 지역), 중산간 지역(해발 200~600m) 및 산간지역(600m 이상 지역)으로 3분할 수 있는데, 이 세 지역이 제주도민들에게 주는 자연적 혜택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해안지역은 도민들의 주거지, 도로, 사회시설과 농경지 등 다양한 생활용지를 제공하는 가장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간적 영역이다. 말하자면, 해안지역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활동의 중심장(中心場)이다.

해발 200m 이하의 해안지역의 면적은 993.3km²(99,330ha)로서 제주도의 총면적인 1,828.3km²의 5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안지역에서는 제주도민들의 경제활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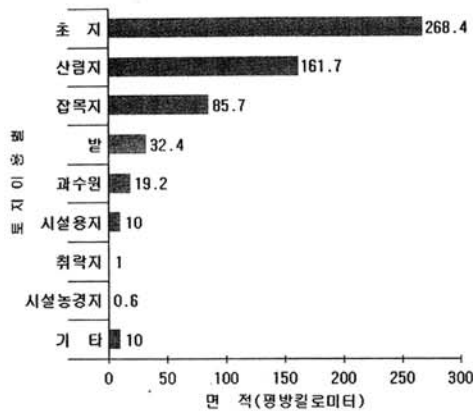


<그림 3> 해안지역(해발 200m 이하 지역)의 용도별 토지 이용 실태

출처: 제주도, 1997,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165쪽
에 의해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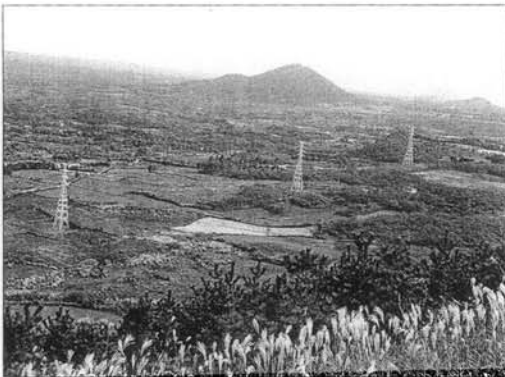
근본을 제공하는 밭(289.9km²)과 과수원(262.5km²) 면적이 높게 나타난다. 취락지는 41.4km²(4,140ha)에 불과하여 다른 용도의 면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지만, 제주도의 전체 취락지 면적인 42.4km²(4,240ha)에 비교해 보면 97.6%나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발 200~600m 사이의 중산간 지역은 총면적이 589.0km²로 확인되며, 이중 초지(268.4km²), 산림지(161.7km²), 잡목지(85.7km²)가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사진 10). 이점은 중산간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초지가 넓게 점유한다는 사실은 과거로부터 목축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며, 산림지나 잡목지의 면적이 넓은 배경도 주로 자연에 의존하던 1960~1970년대를 돌이켜보면, 땔감(신탄)을 비롯하여 집안에 여러 용도로 필요한 목재를 제공해 왔음은 물론, 다양한 임산물 생산에도 활용돼 온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중산간 지역은 해안지역과는 다른 차원의 중요한 생산기지로써, 제주도민들의 윤택한 경제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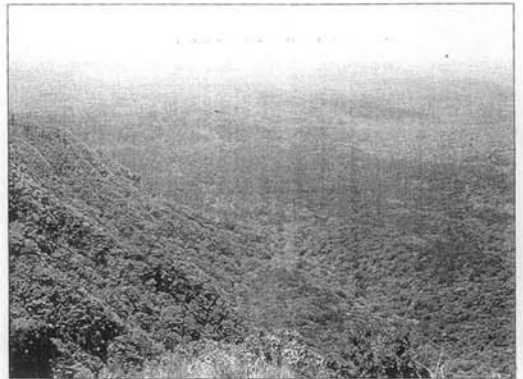
〈그림 4〉 중산간 지역(해발 200~600m 지역)의 용도별 토지이용 실태

출처: 제주도, 1997,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165쪽에 의해 필자 작성.



〈사진 10〉 샘이오름~우전재비 주변의 중산간지역

한편, 해발 600m 이상인 산간지역은 제주도 총면적의 13.5%에 해당하는 246km²(24,600ha)를 차지하고 있다. 산간지역의 주된 토지이용은 산림지(218.8km²), 잡목지(14.1km²), 초지(11.4km²)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중에서도 산림지의 면적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할 수 있다(사진 11). 이 산간지역의 기능은 순환의 원리에 의해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향시 깨끗한 산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수종으로 구성된 식생이 보전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자연공원으로서 충분히 낭만과 희열을 느끼도록 한다.



〈사진 11〉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산간(산림)지역

그렇기에 산간지역에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경제활동을 금지해왔고, 또한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상업성을 전제로 한 대대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 무리한 지역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산간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과거로부터 주로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정도에 머물러 왔다.

이상과 같이, 「한라산 = 제주도」로 설정하는 시점은 한라산체 혹은 한라산 자락(사면) 전체를 제주도민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거대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생활공간」인 한라산 자락을 해발고도를 토대로 구분해서 검토해 보면, 세 개의 지역은 서로 역할과 기능이 다르면서도 한편으로 제주도민들의 삶에 아주 긴요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민들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한라산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로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영원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상징체(象徵體)로서 존재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3. 한라산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

앞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내용으로서,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점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에 대

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궁극적으로 한라산이 제주도민들에게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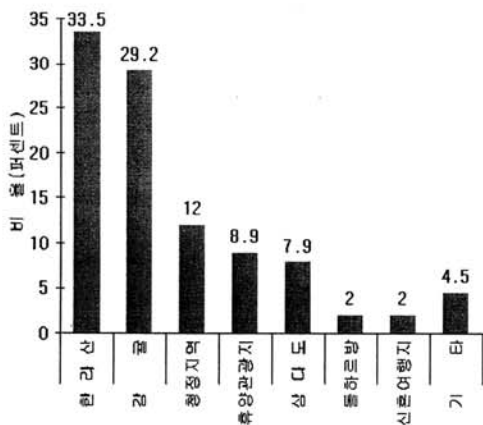
1) 제주도(濟州島) 최고 이미지로서의 한라산

제주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 제주도민이라면 쉽게 연상해 낼 수 있는 단어들이 많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한라산을 비롯하여 감귤, 해녀, 초가집, 돌하르방, 특색 있는 오름들, 제주방언 등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나 좀 더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에 제주일보사와 미래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발표한 제주도민의 의식조사는 참고할 만 하다.

<그림 5>는 제주도의 이미지로 생각나는 상징물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도의 이미지에 대한 상징물로서는 한라산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감귤(29.2%), 세 번째로는 청정지역(12.0%), 네 번째로는 휴양관광지(8.9%)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삼다도(7.9%)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신혼여행지(2.0%)나 돌하르

방(2.0%)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제주일보, 2005). 4개의 시·군 지역별로 검토해 보면 산북지역인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는 한라산을 먼저 지목하였고, 반대로 산남지역인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는 감귤을 우선적으로 연상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결국, 자신들의 해당지역에 따른 상징물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의 이미지로서 비교적 높게 자리잡은 5개의 상징물은 감귤을 제외하면, 주로 제주도의 자연과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시각에서 평가하자면, 한라산 백록담을 비롯한 주변의 국립공원과 삼림지역, 부속도서, 중산간 지역의 꽃자왈 지역, 368개의 오름군, 용암동굴, 나아가 다양한 화산지형 등은 제주도를 전국에서 최고의 지위로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에서도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한라산이 제주도를 빛내고 상징하는 자연구성요소 중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여기는 사실을 의미심장하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라산의 존재가치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역으로 제주 섬 한가운데에 한라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무미건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5> 제주도의 이미지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조사 결과
출처: 제주일보, 2005년 1월 1일(토), 제26면 기사에 의해 필자 작성.

2) 일상생활 속에서의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친숙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는가. 아니면, 제주도민들의 정신세계 속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대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전화번호부를 활용하여 <표 3>을 작성하였다. <표 3>은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단어인 '한라' 또는 '한라산'을 상호나 고유명칭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 사례는 최근 전화번호부(2004년판)에 등재된 것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실

<표 3> '한라' 또는 '한라산' 명칭의 활용 사례(일부)

구 분	활 용 사 례	비 고
지역축제	한라문화제 (2001년까지)	2002년부터는 탐라문화제
유 치 원 학 교	한라유치원 한라초등학교 한라중학교 제주한라대학	사 립 공 립 공 립 사 립
신 문 사	한라일보사	
감귤브랜드	한라봉	
주 류 업	한라산(소주)	주식회사
학 원	한라학원 한라무도학원 한라음악학원 등	이외 사설 학원 다수
병 원	한라병원	의료법인
극 단	한라산 놀이패	사 설
부동산업	한라부동산사무소(2개소)	개 인
유류업체	한라산석유	개 인
냉동업체	한라산냉동	개 인
건설업체	한라(레미콘)	주식회사
음 식 점	한라횃집, 한라분식, 한라반점, 한라산식당 등	개 인
증장비 대여업체	제주한라스카이 한라크레인 한라하이랜더 등	개 인
연 구 소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연구소	사단법인 공공기관
도체육관	한라체육관	
영농조합	한라영산영농조합	
식품업체	한라식품, 한라식료품, 한라산식품 등	개 인
서 점	한라서적타운	개 인
등산학교	한라산등산학교	사단법인부설
여관·호텔	한라여인숙 한라산호텔 한라장여관 한라호텔	개 인
약 국	한라약국 한라산약국 등	개 인
우유업체	한라우유	주식회사
교 회 복지단체	한라산교회 한라산기도원	
주 점 다 방	한라산단란주점 한라산가요반주 한라다방 등	개 인

출처: KT, 2004, KT 전화번호부 SUPER PAGE—2004▶2005
제주 상호·인명-, KT, 276-277, 371-372 등에 의해
필자 작성.

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활용사례들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 표에 제시한 활용사례만 보더라도, '한라'와 '한라산'의 명칭이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애용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라' 혹은 '한라산'의 명칭을 상호나 고유명칭으로 활용한 사례는 정량적으로 전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확인된다. 2001년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의 명칭은 한라문화제로 통용(1965~2001년까지 36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 탄생한 초·중학교의 교명에도 '한라'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주류도 '한라산' 소주이다. 이외에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사, 병원, 연구소에는 물론이고 체육관, 사설학원, 서점, 음식점, 건설업체, 여관·호텔업, 사회복지단체·교회, 주점·다방의 상호에 이르기까지 활용도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

나아가, 동일한 전화번호부의 제주시편에서 '한라' 또는 '한라산' 명칭을 상호로 활용한 사례의 총 건수를 살펴보면 '한라'는 258건, 그리고 '한라산'은 19건으로 나타난다(KT, 2004). 서귀포시편의 경우는 '한라'가 총 99건, '한라산'은 11건으로 집계된다(KT, 2004). 이 통계적 수치를 기초로 할 때, 제주도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상호나 사명(社名) 등 특정한 고유명칭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한라산'이란 명칭보다 '한라'라는 명칭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은 <표 4>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2005년 5월 25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

<표 4> 지역신문 3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한라' 및 '한라산'의 빈도수 (단위: 건, %)

구 분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한 라	769(71.9)	2,631(82.0)	5,553(72.2)
한 라 산	301(28.1)	578(18.0)	2,143(27.8)
합 계	1,070(100.0)	3,209(100.0)	7,696(100.0)

(검색시점은 2005년 5월 25일(수), 특히 제주일보는 2002년 7월 1일~2005년 5월 25일까지)

출처: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 의해 작성.

주도내 3개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한라’와 ‘한라산’을 키워드(주요어)로 검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각 신문사별로 검색된 ‘한라’와 ‘한라산’ 주요어의 빈도수는 제주일보가 총 1,070건, 한라일보가 3,209건, 제민일보가 7,696건으로 확인된다. 신문사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의 개설연도나 개편연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검색한 내용을 ‘한라’와 ‘한라산’으로 구분해 보면, 3개 신문사가 모두 ‘한라산’보다는 ‘한라’라는 주요어가 평균 75.4%를 차지하여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례에서 활용되는 ‘한라’나 ‘한라산’이란 상호나 고유명칭은 제주 섬 한가운데에 솟아 있는, 글자 그대로 ‘한라산’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의미하는 별칭으로 사용하는 듯한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에서는 ‘한라’나 ‘한라산’이란 고유명사가 단순히 산(山)을 뜻하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생활을 영위하는 넓은 공간으로서의 제주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어의가 변화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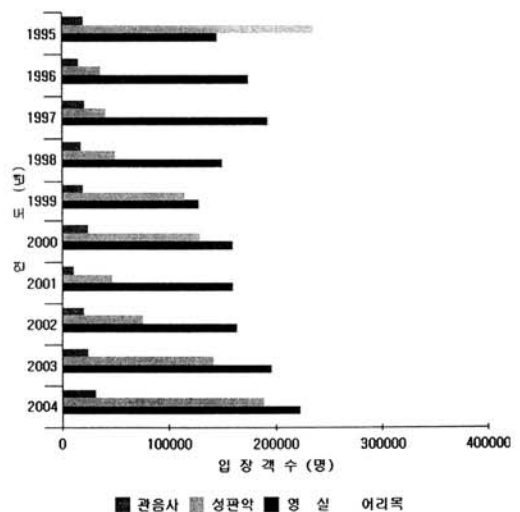
아무튼, 이상과 같은 사례를 전제로 평가해 볼 때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한라’ 또는 ‘한라산’이란 단어가 매우 친숙한 고유명사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만으로 한라산이 제주도민들의 정신세계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확인해내기 어렵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이 거의 매일 한라산을 접하는 생활에서는 분명히 정신세계 속에서도 이질적인 감각이나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상이기보다도 친근한 의지의 대상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려된다.

한발 더 나아가 기분이 좋을 때나 울적할 때, 서민들의 술인 ‘한라산’ 소주를 마시며 ‘한라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단 한시도 떠나보낼 수 없는 소중한 정신적 지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 출신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학자인 현길언(2002)은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정신적인 토양이 되면서 제주도 문화의 한 자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4. 한라산 탐방의 배경

한라산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물론 한라산을 찾는 사람들은 제주도민에만 한정돼 있지 않고, 제주도를 탐방하는 관광객 중에서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6). 여기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한라산을 탐방하고자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끌어내는 해답은 반드시 한라산을 탐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는 유명한 산이나 혹은 외딴 지역에 홀로 떨어진 특수한 산도 같은 배경이 될 수 있다. 단지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해



<그림 6> 한라산 입장객수의 연도별 변화(1995~2004년)

출처: 제주도, 2005, [2003~2004년 도정백서], 685쪽에 의해 필자 작성.

두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한라산이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의 한라산 탐방배경에 대한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그것은 ‘왜 사람들은 한라산을 올라야만 할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한라산에 오를까’, 나아가 ‘대체 한라산에 올라서 무엇을 얻고 내려오는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하자. 우선 첫째로, 한라산은 제주도내 어느 방면에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라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눈앞에 바로 펼쳐진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든지 1시간 이내면 어리목이든, 관음사든, 영실이든, 성판악(휴게소)이든 한라산을 오를 수 있는 지점까지 다다를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게 솟아있는 한라산은 항상 제주도민이든 관광객이든 여러 사람들을 유혹한다. 특히 날씨가 맑은 날이면, 한라산은 더욱 더 선명하고 요염한 자태로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 유혹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어 한라산을 오르게 된다. 한라산을 오르면, 사람들은 한라산의 지닌 자연의 일부를 얻고 돌아온다. 그 자연의 일부는 오르는 중간 중간에 마시는 한라산 샘물이고, 맑은 공기이며, 수많은 야생화와 짝지어 노는 노루이고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이름 모를 새들이다(사진 12, 사진 13).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맡고,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결국 ‘환희’라는 선물로 변신하여 되돌아온다. 한라산은 바로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는 산이다. 사람들은 한라산이 지닌 자연의 일부, 즉 자연의 매력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한라산을 갈구하며 오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한라산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비밀과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 중요한 비밀과 정보를 얻기 위해 또



〈사진 12〉 신간지역 용천수인 노루샘



〈사진 13〉 영실 부근의 산철쭉

한 한라산으로 향하는 것이다. 한라산이 가진 중요한 비밀과 정보는 시간대마다 바뀌고 계절마다 바뀌는 경관적 요소이기도 하고, 독특한 비경을 뿜내는 여러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선민들이 쌓아놓은 역사의 한 조각이나 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엄청난 비경을 속에 숨기고 있는 아흔아홉골, 탐라계곡, 산별른내, 영실계곡, 수악계곡 등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 골짜기 속에는 구상나무, 비자나무, 시로미, 왕벚나무, 돌매화나무, 영송(靈松) 등이 울곧게 성장하고 있으며, 또 그 많은 나무들 사이 사이에는 한라산 부근에서만 자란다는 제주조릿대,

섬바위장대, 제주사약채, 한라고들배기, 한라개승마 등이 터 잡아 기어코 피어난다는 사실이다(강정효, 2003). 나아가 진달래와 철쭉은 4월과 5월에 한라산을 찾는 사람들을 기어코 매력으로 빠지게 한다. 운이 좋을 때면, 한라산 탐방객들은 한라산 자연 속에서 노루와 오소리, 제주족제비와 제주땃쥐, 제주도마뱀과 제주비바리뱀 등이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허우적거리는 모습도 접할 수 있다.

나아가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원류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설화가 깃들여 있는 오백장군, 제주의 위급한 상황을 외부로 알렸던 왕관릉(연덧돌, 煙臺), 불교유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행굴(修行窟)과 존자암(尊者庵), 굴빙고(窟氷庫)로 활용했다는 구린굴(강문규, 2003), 한라산신제를 지냈던 제의장소와 선인들이 남긴 마애명 암벽장소, 그리고 4·3의 한을 품고 있는 수많은 오름과 계곡 등이 제격일 것이다.

이처럼 한라산은 중요한 비밀과 정보를 가진 장소들을 도처에 품고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한라산을 오르는 제주도민과 많은 관광객들은 중요한 비밀과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여 뇌리에 각인시키거나 카메라 속에 고이고이 간직해서 돌아오게 된다. 물론, 그 중요한 비밀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현장에서는 사람마다 탄성을 지르거나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럴만한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다. 한라산은 자신이 가진 중요한 비밀이나 정보를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내놓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 항상 바뀌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번 오른 한라산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오르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한라산은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한라산으로 향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라산을 오르는 것은 산을 좋아하는 많은 동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라산은 속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매개체로 만남을 주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라

산은 '나와 남', 그리고 '우리들'의 만남의 장소인 셈이다. 보통 사람들은 속세에서 늘 생활하다 보면, 가끔 보고싶은 얼굴들이 스쳐지나갈 때가 있다. 그래서 한라산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약속한 바는 없지만, 언제나 쉬는 장소에서는 그리웠던 얼굴들을 만나게 된다.

한라산에서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나기에, 너무나 반갑고 쌓였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한라산은 그런 대화의 장을 항상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한라산의 자연을 만끽하고 중요한 정보를 같이 얻고 돌아온다. 한마디로, 한라산을 오르는 일은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라산으로 향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꿈과 이상을 품고 살지만, 그 꿈과 이상도 천차만별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의 꿈과 이상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원래처럼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되찾기 위해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한라산을 끊임없이 오르내리면,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한라산을 오르내리며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도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라산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모든 방문객들에게 '말없는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혹은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이외로 많다. 환언하면, 극기훈련이거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라산을 오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 한라산은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굳은 각오와 맹세를 하는데, 또는 새로운 기회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 굳게 다짐하는데 필요한 존재이다. 말하자면 한라산은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다짐과 맹세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또는 세계적인 명산을 탐험하기 위해 혹서기나 혹한기에 한라산을 대상으로 훈련을 쌓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한라산에서 훈련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산악등반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이 탐험하는 고산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칠지 모르기에 사전훈련을 쌓는 것이다. 그들의 꿈과 이상은 자신들이 설정한 산을 무사히 오르내리는데 있으며, 아울러 탐험하는 산의 정상에서 얻는 작은 성취감이라 할 수 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꿈과 이상은 아주 소박하다. 그리고 한라산은 그런 소박한 꿈과 이상을 키우는 데에도 크게 일조하는 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한라산과 제주도민들의 정신문화 또는 생활문화와의 관련성을 주된 논점으로 논의해 왔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한라산은 자연적·생태적 특성이 뛰어남과 동시에 또 제주도민들의 생활을 떠받쳐온 중요한 구심점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데 있어 한라산의 존재는 무한한 가치를 발휘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한라산은 지구의 내적 영력(營力)에 따른 화산활동에 의해 탄생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인 탄생 이후에 그저 아무렇게나 내버려지거나 아무런 가치도 부여받지 못한 채 존재해 온 자연요소가 아니다.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라산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며 나아가 늘 구원과 소망을 담아 의지하려는 신선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많

은 사람들이 한라산의 범위(영역)를 어디까지로 보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나 해답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것은 곧 한라산의 실체를 어떤 관점에서 부각시켜 인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한라산이 제주도민들의 오랜 생활과 직결돼 있는, 말하자면 제주도민들의 과거의 삶에서 시작하여 현재와 미래의 삶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소중한 생명선(生命線)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라산이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몇 몇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인식할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거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라산에 대한 존재감이 이미 내면적으로 승화돼버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항상 일상생활 속의 특정지표로 삼아 외면적으로 의식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결국 한라산에 대한 이미지와 상징성은 개개인의 의식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평소 한라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결부시켜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목표설정과 달성에만 집착하는 사람들만이 한라산으로 향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만큼 한라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사전에 의식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민과 제주도 방문객들이 한라산을 탐방하는 배경을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이들 관점은 다소 일반적인 관점도 포함돼 있지만, 이외로 한라산에는 반도부(육지부)의 산과는 다른 특수한 면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더불어 알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몇 가지 관점이 한라산을 탐방했던 사람일지라도, 거듭해서 방문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날

에는 제주도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한층 더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라산이 지니는 보편성과 특수성도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한라산이 지니는 자연적·생태적 우수성은 물론이고 한라산이 지니는 상징성과 품격, 그리고 한라산과 제주도민들과의 관계성까지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밟아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

- 1) 최근 지역신문인 한라일보(2004년 2월 3일(수) 기사, 한라일보 '한라산 학술 대탐사' 단장의 글)에는 한라산의 최고봉이 '혈망봉(穴望峰)'이라는 기사를 실고 있다. 이 기사에서 강문규 단장(당시)은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1861년) 중 '제주도(濟州圖)'와 이원조(李源祚) 목사가 쓴 『탐라지(耽羅誌)』 등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한라산 최고봉이 '혈망봉'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강문규 단장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제주발전포럼』 속의 "나의 한라산 이야기 ⑧" (2004, 통권 제8호, 53-57)이라는 시리즈 글과 '한라산 학술 대탐사' 시리즈 제3편인 제주생명의 원류 / 하천과 계곡 ③ 한천(한라일보사, 2003, 나라출판) 속에서도 한라산 최고봉은 '혈망봉'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 2)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보통 ① 핵심지역(Core Area) ② 완충지역(Buffer Zone) ③ 전이지역(Transition Area)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는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하여, 해발 200m 이상 지역과 영천 및 효돈천 주변의 해발 500m 지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 서귀포시립해양공원과 효돈천 하류를 연결하는 해양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지역은 15,158ha, 완충지역은 14,601ha, 전이지역은 53,335ha를 지정면적(총 83,094ha)으로 하고 있다(2003년 1월 16일자 환경부 보도자료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보고]).
- 3)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www.hallasan.go.kr)의 내용에 의함. 나아가 행정구역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기 이전(2006년 7월 1일 이전)의 4개 시군 단위이다.
- 4) 1 : 25,000 지형도(1996년 수정판)의 판독 결과임.
- 5) 강만익(2001)에 의하면, 목마장의 경계돌담인 상앗성은 실제로는 하앗성(15C초반부터 축성)보다도 늦은 18C 후반에 쌓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현원학이 고려시대 때부터 목마장용 잣성(즉 해발 500m 지점은 대략 '상앗성'을 쌓은 지점과 일치함)을 쌓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6) 1 : 25,000 지형도(1996년 수정판)의 판독 결과임.
- 7) 이 오름 탐사에는 인문지리를 비롯하여 역사, 산악, 풍수, 식물, 지질, 동물, 영상분야 등 9명의 전문가 위원들이 동행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발굴해 냈다.

■ 참고문헌

- 강만익, 2001,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강문규, 2003, "나의 한라산 이야기 ①", 제주발전포럼 (제주발전연구원), 6, 28-35.
- 강정효, 2003, 한라산, 돌베개.
- 南濟州郡·濟州文化藝術財團 文化財研究所, 2003, 南濟州郡 文化財遺蹟分布地圖, 南濟州郡.
- 西歸浦市·濟州大學校博物館, 2000, 文化遺蹟分布地圖—西歸浦市—, 西歸浦市.
- 정광중·강창화·김일우·김종찬, 2004,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제주교대 논문집, 33, 67-106.
- 정광중, 제주일보, '시론—한라산 예찬론—', 2004년 5월 17일자 기사, 제18면.
- 정광중, 한라일보, '한라산 학술 대탐사',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 74회(최종회 기사), 2005년 4월 29일자, 제10면.
- 제주도, 1997,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 제주도, 1997, 제주의 오름, 제주도.
-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제주 4·3 유적 I—제주시, 북제주군—, 도서출판 각.
- 濟州市·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濟州市—, 濟州市.
- 제주일보, 2005년 1월 1일(토), 「제주도민 의식조사」, 제26면.
- KT, 2004, KT 전화번호부 SUPER PAGE—2004▶2005 제주 상호·인명—, KT.

현길언, 2002, “제주의 자연과 문화”, 제주국제협회의
회 · 제주도 · 북제주군 공편, 제주사회 2020—
변해야 산다—, 도서출판 오름, 127-145.

현길언 · 고길홍, 1993, 한라산, 대원사.

현원학, 2004,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질”, 부산
대학교대학원 지질학과 석사학위 논문. ㉔

투고일 2006. 4. 9 채택일 2006. 6. 10